

교회 회복 150주년 행사의 일부인 세계 계보 대회

8월 12일

교회 회복 150주년 기념 주요 행사의 일환으로 세계 계보 대회가 8월12일에 개최된다. 세계 25개국으로부터 일만 여 명의 회원들이 솔트레이크시티의 솔트 팰리스에 모여 개인 및 가족 역사 작성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된다.

이 대회는 일반 청중을 위한 것이다. 세계 계보 대회와 관련하여, 브리감 영 대학교 제3회 연례 가족 역사 및 계보 탐구 세미나가 금년에 개최될 것이다. 세계 계보 대회와 브리감 영 대학교 세미나의 연합 모임의 주요 역점은 비전문가, 역사가, 계보학자, 사회학자, 인구 통계학자 및 기록 보관자 등 가족 역사와 계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우리의 유산을 찾읍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모임의 주제에는 가족 역사, 인구 통계학, 계보 탐구 및 문장학 등이 포함될 것이다.

세계 계보 대회의 일반 총회의 기조 연설자는 오랫동안 말일성도에게 개인 및 가족 기록 작성을 장려하였던 스펜서 더블류 킴 대관장이 될 것이다.

4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북미, 인도, 페루, 남아프리카, 일본, 대만, 한국, 사라와크, 이태리, 스칸디나비아, 중부 유럽 및 영국 등지로부터 235명의 연사가 발췌를 하게 될 것이다.

작가인 엘릭스 헤일리가 이번 대회의 연사로 초청될 예정인데, 대회 기획자는 “그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대회가 “우리 시대에 가족 역사의 신기원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회의 주요 목적은 가족의 단합과 강화

와 더불어 개인 및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대회 등록 회비는 4일간일 경우 등록비는 50불이고, 1일인 경우 17불 50센트이다. 12세부터 25세까지의 학생은 25불이다. 6월 15일 이후부터는 연체 등록 회비로 성인은 10불, 청소년은 5불씩 가산된다.

등록 절차 및 숙소에 대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해주기 바란다. World Conference on Records, Genealogical Department,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ah 84150.

재립설에 대한 낭설 논박됨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고든 비 힝클리 장로의 말씀이라고 거짓 발표되었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약 1년 반 전, 타자로 찍은 거짓 성명서가 교회의 어떤 특수 지역에 유포된 적이 있었다. 이것이 거짓 낭설임을 밝히려는 교회의 수고도 성공하지 못하여 교회 본부는 계속 이 낭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를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이 거짓 성명서에 의하면 십이사도 평의회회의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남아프리카의 선교사 대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재림이 임하게 될 때를 말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여러 가지 분반 공과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었으며, 교회적으로 다른 모임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분명히 주어졌다.

“힝클리 장로가 1979년 3월 25일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같은 낭설을 반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낭설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회 회원들은 헝클러 장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유의하기 바란다.

“풍문은 터무니 없는 낭설입니다. 거기에는 진실이란 조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같은 소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인은 전혀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재림의 날과 시간에 대하여 물었다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자신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 : 36)

지역 대회 일정

금년 가을에 극동 지역에서 6개의 지역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동양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지역 대회가 될 것이다. 지난 번 지역 대회는 1975년에 개최되었다. 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3개 스테이크와 4개 선교부의 34,000명 성도를 위한 대회. 10월 20—21일, 홍콩 1개 스테이크와 1개 선교부의 5,200명 성도를 위한 대회. 10월 22—23일, 대만 타이페이, 1개 스테이크와 3개 선교부의 8,000명 성도를 위한 대회. 10월 25—26일, 한국 서울, 5개 스테이크와 3개 선교부의 16,000명 성도를 위한 대회. 10월 30—31일, 일본 동경과 오오사카, 8개 스테이크와 8개 선교부의 42,000명 성도를 위한 대회.

오오사카 대회를 제외한 다른 대회에서는 두개의 일반 총회와 12세 이상의 남녀 회원을 위한 분반 모임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오사카 대회에는 1개의 일반 총회와 남녀를 위한 분반 모임이 실시될 예정이다. *



대회 방문자

대회 방문자



신앙의 뿌리를 내리자

서울 동 스테이크부장

고 원 옹

겨울이 가까와 옵니다. 거리의 가로수 잎의 색깔이 변하고 보도위에 나뭇잎들이 흩날리는 것을 보노라면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덩그러니 뻗은 가로수들이 어떻게 겨울동안 죽지 않고 지낼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모든 가로수들은 어김없이 푸른 잎들로 덮여 다시 그 모습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한 것으로 땅 속에서 나무를 지탱하여 주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건축공사 현장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까마득하게 깊이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보아도 역시 별 진전이 없이 계속 땅속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공사를 저리도 오랫동안 할까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초를 놓는 공사 즉 건물의 뿌리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만약 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없을 뿐아니라 몇년전 와우아파트 사건처럼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뿌리는 나무에게 활력소를 공급하여 주고 땅위에서 지탱할 수 있게 하여주며, 건물의 기초는 바로 그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또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를 확고히 깊숙이 내릴 때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깊숙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토양 속에 있는 장애 요인인 돌이나 가시떨기를 걷어 내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 위해서 한 두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일성도로서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얼마되지 않아 비활동화되는 것도 여기에 까닭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작업에는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축복을 구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회 책자를 연구해 본다가거나 신권지도자에게 질의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되어지는 영양은 그 뿌리에게 이질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느 한 때에만 주어져서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

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일상화 되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에서 아주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이를 위하여 할애하여 주신다면 그렇지 않은 생활에 비하여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하기를 꾸준히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고 경전이나 교회의 책자를 상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영양 공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을에 우리는 영적으로 훌륭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시는 한국대회를 맞아 많은 준비를 통하여 우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시련의 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폭풍과 홍수가 몰아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평소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우리에게 비치는 밝음과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때로는 지루하게 여겨지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에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셔서 끝까지 견디는 의로운 무리가 되어 평생을 이 교회에서 보내며 마지막 날 영광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서울 서, 북 스테이크 합동 소년 대회 및 청년 대회



지난 7월 29일부터 설악산 스마일 모텔에서 소년 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8월 5일부터 3박 4일 동안 청년 대회를 개최하였다. 설악산에서 청년 대회와 소년 대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대회를 위해 스마일 모텔을 경영하는 손 승은 형제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소년 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176명이며, 청년 대회에 참가한 형제, 자매는 14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대자연 속에서 갖는 세미나, 등산, 그리고 해수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지도자들의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보다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회 끝날에는 그동안 사귄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



서울 스테이크 청년 대회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강 상류의 경기도 용문면 금곡리 강가에서 서울 스테이크 청년 대회가 열렸다. 먼저 떠난 선발대가 5개의 천막과 부속 건물을 지었으나 지역 사정으로 40여명의 본대도 도착하자마자 본 장소에서 2km 떨어진 관광 캠프촌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번 대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말일성도들의 개척 정신과 교회 회복 150주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의 카니발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천막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 젖은 옷으로 밤을 새웠다. 대회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경험을 맛본 회원들은 더욱 두터운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여러 신권 지도자가 방문하여 독신 성인들을 격려하였다. *

서울 스테이크 소년 대회

서울 스테이크 소년 대회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강 상류에 자리잡은 경기도 용문에서 열렸다. 대회장의 주위 환경이 매우 아름다웠다. 선발 대원은 비가 오는 가운데 모든 준비를 잘 마쳤고 본대가 도착할 때는 날씨가 맑았다. 부모의 곁을 떠난 교회의 청소년들이 소년 대회를 통하여 공동 생활을 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신권 지도자들의 영적인 말씀과 체력 단련,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3박 4일의 일정을 잘 마쳤다. 대회를 끝내고 돌아올 때는 모두 아쉬워하며 하루를 더 머물자고 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강건히 무장되어 돌아왔다고 참여한 소년들은 입을 모았다. 8월 15일, 19일 소년 대회 임원들은 1981년에는 더 훌륭한 대회를 가질 것을 다짐했다. *

서울 스테이크 복지 농장 일 모임



인도원에 앞서 직원 경의를 받는 회원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서울 스테이크 산하 와드, 지부 회원들은 안성에 있는 복지 농장에 모여 잡초 제거 작업을 하였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복지 농장에 자주 가보지 못하므로 경축일을 맞아 모이게 된 것이다.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버스를 대절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약 250여명의 회원들이 일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오랫동안 농장에 온 회원들은 넓은 농장에 주렁 주렁 달린 과일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개봉 지부 와드로 승격



전일 농장 정 기만 감독

서울 서 스테이크 개봉 지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와드로 승격되었다. 개봉 지부장으로 수고하였던 최 남용 형제는 서독으로 연수 교육차 떠났으며 개봉 와드 감독으로는 정 기만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그의 보좌로 정 길수 형제와 이 동순 형제가 성별되었다. *

서울 동 스테이크 복지 농장 봉사



요리를 돕는 회원들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스테이크 내 와드·지부 회원 260여 명이 함께 경기도 안성 교회 복지 농장에서 봉사 모임겸 야유회를 가졌다.

버스 6대에 분승하여 1와드에 집결 함께 출발한 회원들은 스테이크 발족 후 처음 갖는 야외 모임에 모두들 기쁜 표정이었으며 농장에 도착하여 풀을 베고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을 따면서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하였다.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우정을 나누고, 특히 봉사를 마친 후 온 회원들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민속 무용을 즐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많은 회원들이 복지 농장에 온 것이 처음이었으며 자주 와서 봉사하기를 희망하였고 복지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좀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



파인 사과를 손질하는 회원